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각각이 선명해지는 계절입니다. 묵직한 눈 이불을 걷어내고 겨울잠에서 깬 오소리 공원에는 봄을 반기는 나비들처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싱그러운 꽃내와 라일락 향기는 봄을 노래하고, 꽃들은 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춥니다. 푸릇푸릇한 잔디밭에서 왁자지껄 뛰노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푸근하게 지켜보는 구름들, 하늘빛 이야기를 쏟아내는 공원의 분수대까지. 모든 것들이 생기 넘치게 움직이는 광경을 볼 때마다 자유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벚꽃 릴레이

한국에는 '벚꽃 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곡을 만든 저작권자가 매년 봄마다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 대표적인 곡은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일본에도 봄의 캐럴이 존재하는 것처럼, 핑크빛 벚꽃이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는 것도 두 나라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월 1일 이후의 최고기온을 합산하여 누계가 '600℃'를 넘는 날 벚꽃이 핀다고 하며, 규슈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온 벚꽃전선은 4월 말경 홋카이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로써 홋카이도에서도 혼슈와 가까운 도난지방 (마쓰마에, 하코다테 등) 부터 긴 겨울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 금년 2월 일본기상협회에서 발표한 2022 벚꽃 개화 예상일.
도쿄와 삿포로의 개화시기는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봄에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예년보다 8일이나 이른 개화가 시작되어, 샛포로 오도리 공원은 골든위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핑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이 개화하여 만개하는 데는 평균 5일 정도가 걸리지만, 그 일수에 지역차가 크다는 사실은 좀 흥미롭습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만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2012년 아사히카와에서는 개화한 벚꽃이 불과 '5시간 반' 만에 만개했다는 기상청의 관측 기록도 존재합니다.



▲ 하코다테 벚꽃 명소 '고료카쿠 공원'에 핀 벚꽃 (소메이요시노)

라일락 꽃 필 무렵

'라일락'은 삿포로시를 상징하는 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월 중순, 도심의 라일락 빛깔이 절정에 달할 무렵, 오도리 공원에서는 3년 만에 '삿포로 라일락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행사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라일락 향을 맡으면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의 필수템이었던 '곰돌이 크레파스' 냄새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곰돌이의 활약 무대였던 대전광역시도 샛פור시의
자매도시이기도 합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 ▶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삿포로 시내에서도 봄이 되니 빨간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삿포로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4~11월) 공유 자전거 '포로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교류원들도 포로클을 이용하여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자전거는 시내 수납 곳에 설치된 전용 포트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플랜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번 취재에 이용한 1일 패스는 스마트폰 결제 외에도 관광 안내소나 호텔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을 이용하면 각 포트의 자전거 현황과 자전거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클에는 전동 어시스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페달을 가볍게 밟아도 수월하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다소 접근성이 낮은 목적지들의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는 편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환승을 하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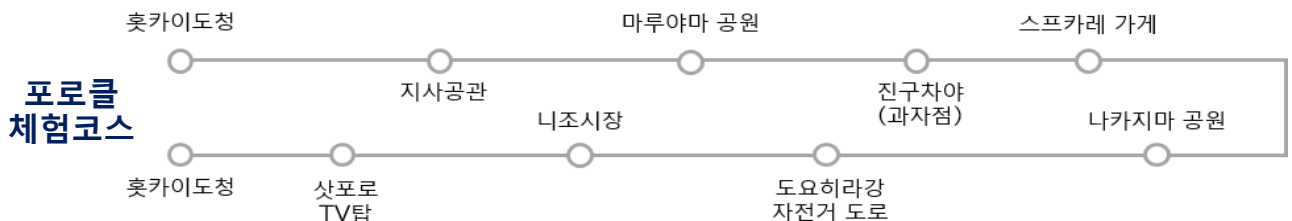


▲ 도요히라강 자전거 도로. 본가 근처에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러닝을 하던 코스와 풍경이 흡사해서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 날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약 22km를 달려 보았습니다. 삿포로 시내는 도로가 비교적 평탄하고 교통량과 보행자도 서울보다 적을 뿐더러, 곳곳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종종 포로클을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삿포로에 오시면 한 번쯤 자전거를 타고 삿포로를 구석구석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DAY 실시



홋카이도와 경상남도는 2006년 6월 7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홋카이도청 1층에서 '경상남도 DAY'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행사에서는 경상남도 패널전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동경사무소의 관광 프로모션, 관광 팸플릿 배포, 한복 시착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9일 낮에는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경상남도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통해 우호지역의 개요와 명소, 향토음식 등 지역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초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